

대학 예절교육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¹⁾

김 연 화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 예절교육의 필요성
 3. 대학 예절교육의 실제
 4. 대학 예절교육의 활성화 방안
 5. 마치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예절을 중시하여 생활하여 온 문화민족으로서 타민족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존경받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난날 겪었던 급변하는 국내의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돈으로 과거의 인본주의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주의, 능력주의, 업적주의에 가치를 둔 결과 민족적 정서를 지탱해온 예의정신(禮儀精神)이 희미해지고, 그에 따른 예의부재(禮儀不在)로 친절(親切), 청결(清潔), 질서의식(秩序意識), 공중도덕(公衆道德) 등이 부족하다²⁾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독특한 풍습과 생활양식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내려온 행동양식

1) 본 연구에는 이정우·김연화(1996,1998)의 논문내용이 발췌하여 수정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2) 몇진 시민 품위있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문화시민 운동이 필요하다(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1998). 우리 국민 모두가 대인관계에서 문화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규칙은 친절, 질서, 그리고 청결이다. 이것들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모자라다고 지적하는 덕목들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약점들이기도 하다.

인 예절을 현대에 진단해 볼 때, 이 시대에 적합한 모습의 예 규범(禮 規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인간성 회복과 원만한 대인관계,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사회의 질서유지, 문화의 전승 및 가치창조, 그리고 예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예절의 형식은 달라지더라도 친절·배려·공경·사랑·정성에 바탕을 둔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오늘날에 있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직업구조가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대학교육은 심도 있는 연구와 직업교육을 통해 학문적 발전은 물론 사회 및 산업 각 분야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교육은 전문적 지식 못지 않게 교육 내용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개선하여 산학 모든 분야의 질적 향상에 주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으로(임원자 외, 1996) 지(知)와 덕(德)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절교육은 유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거쳐 이루어지고 실천해야 할 인성교육이지만, 우리 나라의 대학생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자아 정체감이 유보된 채 청소년기를 지나고, 학교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도덕적 숙고를 통한 올바른 윤리관 확립과 가치윤리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절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예절교육은 개화기 이후 가정학 교과과정에서 일부 지도하여 왔으며, 실습을 겸한 예절은 1932년 이화여자대학교 가사실습소인 생활관이 세워진 것을 시초로 숙명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상명여대 등에서 가정경영과 예절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예절과목이 성신여대와 명지대학교에서, 90년대 초반이후에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몇몇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강의되고 있으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과정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에서의 예절교육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교과목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과목표나 교육내용, 교육자료 등이 미흡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절교육의 실재를 살펴 본 후 대학 예절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예절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가정학 주체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입지구축과 함께 예절지도사 자격증 및 대학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부의 예절교육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대학 예절교육의 필요성

대학생들의 생활태도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화 내용과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양식이 때로는 사회 발전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범죄 가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성이다, 자유다 하여 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일들이 때론 우리의 미풍양속도 저버린 채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나 교수들이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색다르게 지적하는 역설적인 반성문 형태의 글들(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996; 고려대학교 고대신문, 1996)이 자주 교내 신문에 오르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만 급급했던 기성세대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간의 문화지체로 제대로 예의범절을 가르치지 못한 과오에서 비롯되기도 하겠지만,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용서되는 현행 교육제도하에서 생긴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 또한 전통과 서구문화의 혼재 속에서 이 시대에 적절한 바람직한 예절의 진수를 보여 줄 능력이 부족할 뿐더러 자녀에게 어떻게 예절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예절지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덕목인 윤리·도덕·생활예절에 대한 가르침을 오로지 형식적 제도기관인 학교와 사회를 통하여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정우·김연화, 1996, 1998; 임혜경·정지영, 1997).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한편으로는 가정규범이자 기본 생활규범인 예절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지적인 교육만을 주로 받고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4년간이란 인생발달주기에서 성인의 역할을 준비하는 심리적 대기 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이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경제적·교육적 구조로 인해 청년기가 지나치게

연장됨에 따라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의 정립이 장기적으로 유보되어 온 탓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황경식, 1995).

하지만 대학생은 장차 가정·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야할 주역이고 미래의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이며, 장차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을 형성하여 가정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발전에 기여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생에게는 학문의 발전과 계승을 위한 심도 있는 전공교육과 함께 학생자신의 마음가짐·몸가짐·언어와 행동 등의 모든 면을 가다듬어 조화로운 대인관계 및 교양을 갖추게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 온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예의범절을 알고 올바르게 실천케 하여 습관화 되도록 하는 대학에서의 예절교육은 늦은 감은 있으나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선행연구(이길표, 1994; 임희규, 1995; 이정우·김연화, 1996, 1998; 정지영 외, 1996; 임혜경·정지영, 1998; 이행숙, 1998)에서도 규범교육을 받아 익혀볼 경험이 적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은 필요하므로 가정생활교육, 실천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양과목을 통해서라도 가정생활규범교육의 부재로 인한 생활문화를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부연하면 예로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든가, 선비들은 공부할 하기 전에 의관을 바르게 정제 후에 한다든가, 예(禮) 악(樂)에 치우침이 없이 하라든가, 사람다운 행실을 다하고 나머지 힘이 있거든 학문을 하라(行有餘力 卽以學文)는 말과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의 내용은 전문교육분야의 학문탐구 못지 않게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도덕적 인격을 먼저 갖추고 예절을 지키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論語; 禮記; 김충렬, 1994; 목민심서).

그러나 예절교육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에 교과목의 일부로 또는 특강교육 형태(1999년 11월 현재 8-11월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Y구청 위탁 예절교육을 실시 중)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2회, 1-2시간 정도의 단기 특강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사회 안에서 동일한 과정의 규범이나 예절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도덕성이 발달해 가는 것은 아니며 습관화되지는 않는다. 부연하면, 아동기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도덕적 혼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으며(김광웅·방은령, 1992) 일부 연구에서는 성인기까지의

이행과정에서 퇴행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원, 1985; Holstein, 1976; Kohlberger, 1969; Turiel, 1977; 방은령, 1995재인용). 따라서 예절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몸에 익혀 실천해 가야하는 것이므로 교양으로서의 생활예절 및 인격도야 교육은 원만한 사회생활에 진입 및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위하여 대학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대학예절교육의 실제

1) 대학예절교육의 실제 및 현황

대학생들의 예절교육은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윤리 및 가정 과목 등 교과목의 일부로, 그리고 학교에 따라 특강이나 생활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과정의 예절교육을 일시적으로 받았다해서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도덕성이 발달해 가는 것은 아니며 습관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관리하며 남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윤리 및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1989년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대학의 경우 교양 필수과목이던 국민윤리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는 교양과목으로서 생활예절 과목이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2년제 대학의 예절교육은 여성교양과, 보육과, 생활관리과, 가정학과, 비서학과 등에서 교양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 과목으로 ‘생활예절’, ‘생활예절실습’, ‘다도’ 등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정자격자에게 ‘예절지도사 1급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점차 사회교육·학교·유치원, 유아원 등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몇몇 여자대학교에서만 개설되었으나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숙명여대의 경우 1992년 1학기에 개설된 이래로 꾸준히 학생 참여율이 매우 높은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9년 현재 숙명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청주대, 대전대, 한경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생활문화와 예절’, ‘현대사회와 예절’, ‘실천예절’, ‘예론’, ‘가정생활과 예절’, ‘사회생활과 예절’ ‘현대인과 국

제매너' '세계화시대의 현대인의 예절' 등으로 학교에 따라 교양선택, 교양필수로 2학점 또는 3학점 단위로 대체로 가정대학(생활과학대학 또는 교양과) 주관 하에 개설되어 오고 있다. 초기에는 여자 대학교에서만 개설되던 것이 근래 남녀 공학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을 볼 때, 생활예절은, 남녀 불문하고 나이 든 계층만이 아닌 젊은 세대에도 중요하며 필요한 분야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에는 정규강의는 아니지만 신입생 대상 예절강좌(서울대학교, 1999), 또는 4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대학의 취업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봄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이에 부응하여 몇몇 대학(대진대학교, 수원여대, 오산대학, 장안대학, 경원전문대학 등)에서 예절전문 겸임교수를 두어 예절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명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도덕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테이블매너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각 기업체의 사원모집 최종 인터뷰가 대부분 만찬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래에 테이블 매너를 비롯한 에티켓 강좌가 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대학의 '구직만찬 에티켓',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MBA(경영학) 석사과정에 '취업에티켓 강좌' 등이 그것이다(문화일보, 1996. 11. 21).

본 조사대상 대학의 경우 생활예절 수강생은 예의 기본정신을 터득하여 나를 가꾸고 남을 배려하며 존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대화예절, 관혼상제, 가정·학교·직장생활예절, 여가예절, 다도 등 생활전반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절을 습득케 함으로서 이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개설되었다.

2) 예절 교육내용 -숙명여대를 중심으로-

다음은 숙명여대를 중심으로 한 예절교육 내용과 다른 대학의 내용도 첨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교과 내용

1992년 1학기에 '생활예절'은 가정관리학과 개설의 주관과목으로 2학점 2시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교과목 책임교수와 과목강사들의

회의를 통해 그간 3회에 걸쳐 교과명과 그에 따른 강의 시간, 학점 및 강의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변경하였다. 교과내용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며 합리적이면서 현대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중심으로 하고 전통예절은 부분적으로는 첨가하기로 하되 학생들의 관심도와 시대에 맞는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1998년 1학기부터 ‘생활예절’ 과목명은 ‘생활문화와 예절’로 변경하여 개설하였는데, 이는 생활예절이라 하면 인터넷 사이버 시대의 대학생들에게는 진부한 감이 들것으로 생각되어 예절수강생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다. 그리하여 2학점/2시간을 3학점/3시간으로 수정하였고, 강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실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생활예절교육의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이정우·김연화, 1996)’,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이정우·김연화, 1998)’, 이정우·이미선(1985)의 연구결과 및 2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지영 외(1996), 이행숙(1998) 등의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직업생활과 관련된 예절부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학부제의 영향으로 가정관리학과 개설 교양과목의 관심도를 일층 높이기 위해 1999년 1학기부터는 강좌명을 ‘직업·생활예절’로 바꾸어서 교육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부언하면 본 대학에서는 전통예절의 근본정신과 의미를 알게 하고, 인간관계, 개인생활(마음가짐과 몸가짐, 기거동작 등), 의사소통, 가정생활, 학교·직장생활, 사교, 의식생활, 가정의례, 세시풍속, 국제매너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예절을 현대생활에 적절하게 구성하여 강의하였다. 즉, 예의 기본정신을 터득하여 다가올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예절을 습득, 활력 있고 원만한 직업인·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숙명여대, 직업·생활예절 강의계획서, 1999).

교과목명과 교육내용은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생활예절 교육내용 - 숙명여대의 경우

개설 년도	1992-1997	1998	1999
과목명 (학점)	생활예절 (2/2)	생활문화와 예절 (3/3)	직업·생활예절(3/3)
강의 내용	<p>예의 근원과 역사 예의 기본, 전통적 가치관의 평가 가정의례- 전통과 현대 비교 - 관혼상제, 세시풍속, 연중행사 시청각수업-가정의례 다도(차문화사, 생활차) 가정생활예절 - 친족관계와 가족관계 - 전통여성교훈서 발표 현대생활예절 - T.P.O에 따른 의,식문화예절 - 사회생활예절(대화, 직장생활, 방문, 영접, 상호소개, 선물) 실습 강의 총평가</p>	<p>예란 무엇인가 인간관계와 예절 의사소통예절 개인생활예절 가정생활예절 일상생활예절 학교·직장생활예절 사교예절 식생활예절 의생활예절 여가생활예절 가정의례 (관·혼·상·제·연중 행사) 차생활예절 강의 총평가 (#1996년부터 교육내용은 비슷)</p>	<p>-예란 무엇인가 동서양예절비교 성공하는 직장인의 이미지 메이킹 행동예절- 인사, 기거동작 언어예절 -호칭, 대화, 전화, 초대장, 통신 직장선택과 면접요령 인간관계와 예절- 교류분석과 예절 직장인의 과학적인 업무진행 식생활예절- 한·양식 테이블매너 사교예절- 소개,초대,방문,접대, 파티 가정의례 -관례(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타문화의 이해와 국제매너 -출장, 여행,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강의 총평가</p>
주교재	여성교양학회, 생활예절	이정우 외,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대출판부(기타 부교재, 논문 사용.)	
관련 행사	예절교재편찬 2권, 예절위탁교육, 성년례 실시, 학교 워크샵 참가 외국인 대상 한국예절교육		

숙명여대에서는 '가정경영 실습 및 국제매너(생활관에서 2주 수업)' 도 개설하였는데 수강생 과다로 행복한 고민 중이다.

기타) 1999년 2학기 현재 예절과목 개설현황3)

2년제 대학 여성교양과, 보육과 등 -생활예절, 다도 각각 전공선택, 2학점 2시간
강원대학교-가정교육과 개설, 생활예절, 2학점 2시간
대진대학교-교양과 개설 실천예절개론, 가정생활과 예절, 사회생활과 예절, 국제생활과 예절, 가정의례는 각각 교양선택, 2학점 2시간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부 개설, 인간관계와 예절, 2학점 2시간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개설, 예론, 3학점 3시간, 전공과목도 개설
숙명여자대학교- 직업·생활예절, 가정경영 실습 및 국제매너, 각각 3학점 3시간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개설, 생활예법, 2학점 2시간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개설, 직업세계, 2학점 2시간
청주대학교- 현대인과 국제매너, 2학점 2시간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개설, 생활예절, 3학점 3시간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개설, 세계화시대의 현대인의 매너, 2학점 2시간 (가나다순)

4년제 대학의 경우 대진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예절과목이 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현대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전반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예절관련 서적은 주로 유교에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예절의 의미 및 본질, 개인생활, 가정의례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서양의 예절서적에는 의사소통, 식사예절, 사교예절, 시민윤리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예절서적은 한국적 전통예절의 근본정신을 일깨우면서 시민사회,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자신을 적응·관리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겠다.

(2) 학급편성·교수방법 및 평가방법

숙명여대의 경우 지금까지 생활예절 강좌 학급편성은 <표2>와 같다.

교수방법은 1992년 이래로 각반에 1명씩 담당하며 강의와 토론 위주로 하였으며,

3) 자료를 보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조사(박물관 견학), 독후감발표, 실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습과 시청각 교재 등을 활용하였다.

평가방법은 다르지만 출석 및 평소 점수 20%, 기말 필기시험 50%, 과제물 2개 30%로 평가하였다(단, 강사에 따라 평가방법은 다르지만 상대평가라 별 문제 없음).

<표 2> 학급편성 -숙명여대의 경우

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주간	2	·	3	2	2	3	3	4	3	5	2	·	2	·	2	·
야간	·	·	1	1	1	1	1	1	1	1	1	·	1	·	1	·

* 수강인원은 분반 당 70-210명 정도
1992년 2학기, 1997년부터는 교과개정으로 1학기에만 개설하도록 되었음.

(3) 과제물 · 실습내용 · 시청각내용

과제물은 전통 교훈서 (‘동몽선습’, ‘소학’, ‘계녀서’, ‘사소절’, ‘논어’, ‘맹자’, ‘대학’, ‘예기’, ‘채근담’ 등)와 현대에 나온 ‘어느 가정의 예의 범절’, 매너의 역사, 미덕의 책 등 예절 관련서적을 읽고 현대적인 시각에서 분석·비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문 스크랩, 민속박물관 견학보고서, 대학생의 예절교육 필요성, 명절 지내기에 관한 사례조사, 관혼상제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취업을 대비하여 이력서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등 각기 다양한 과제를 주어 제출·발표하고 토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매너에 관한 과제를 주었다.

실습은 수강인원이 많고 계단 강의실이기 때문에 교단 앞에서 몇 명의 학생시범으로 대체 하였으며 실습내용으로는 절하는 법·기거동작·한복 입기·반상 다루기·조문예절·과일 다루기·전통차 마시는 법 등을 다루었다.

시청각 내용은 주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였으며 가정의례에서는 실습용 교재에 관한 실물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비디오 테이프는 담당 강사들의 협의 하에 교과진행에 맞춰 예의바른 기거동작, 올바른 한복 입기, 한식·양식 식사예법, 관·혼·상·제에 대한 내용을 시청토록 하여 실습이 부족한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부터 가정관리학과 주축로 성년례(成年禮)를 거례하여 수강생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의 호응을 받아 1999년에는 총장을 큰손님으로 모시고 대학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1999년 새로 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성년례가 다시 포함되게 됨에 따라 관혼상제의 사례 중 대학시기에 해당되는 의례인 성년례를 통해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갖도록 하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대학예절교육의 활성화 방안

예절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공동체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 등의 공동노력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이 도덕적이며 예의바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친절,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절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대학예절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는 교과목명의 통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세대 대학생들에게는 예절이라는 것이 때론 진부하게 거부감을 갖을 수 있으므로 거부감 없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과목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체계적 정리와 계통화가 필요하다. 즉, 철학이나 국민윤리에서는 인성과 윤리, 도덕, 역사학에서는 예학(禮學), 가정학에서는 가정규범, 가정의례, 사회학에서 가치변동, 민속학에서 풍습과 관습행위로 다루고 있는데, 예절교육에서는 인성과 윤리, 외적인 형식, 사회변화와 가치관 변모, 환경변화와 관습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예절교육내용도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학교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예절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절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로 포함한 전 교과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예절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및 연구가 기대되며, 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개발원 등 기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예절교과목은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대학생들도 예절과목은 교양 선택과목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57.2%, 대학생이면 누구나 교양필수로 수강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 교양과목으로 필요하지 않다가 0.8%로 나타나 99.2% 학생들이 생활예절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정우·김연화, 1996). 그리고 교직과목 이수시, 보육교사·가정복지사·가족상담사·공공가정경영사·소비자상담사 이수시 예절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훌륭한 교사와 지도자로서 품위와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넷째, 대학예절교육 전담강사교육이 대부분 학교이외의 다양한 사설교육기관에서 각기 다르게 이루어짐으로, 체계 없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서 대학에서 강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예절교육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부연하면 강사에 따라 너무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자칫 편의위주로, 기능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천학문이며 생태학적인 가정학의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이론과 함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관리학과의 전공선택과목으로 편입하고 대학원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예절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요구도에 대한 만족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내용, 시설, 기법, 교구 등을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사이버시대의 대학생들은 강의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습을 병행하기를 원하며, 시각적인 영상교육에 더욱 흥미 있어 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기자재를 이용한 질 높은 강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김연화, 1996). 대학생들은 예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 예절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고 예절의 비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예절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점(임혜경·정지영, 1998)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예절교육은 단기강좌나 특별강좌나 특별강연 등과 같은 일시적인 지식의 전달로는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절생활이 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이론과 함께 실습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예절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생활예절교육 및 서적에서는 예의 기본정신이나 동서양 문화 또는 가치관의 비교 없이 기능적인 부분만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예의 접근을 위해서는 중국유학, 한국유학, 그리고 서양 윤리학, 철학 등의 지식이나 가치, 문화를 통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대학예절교육은 다양한 인접학문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사회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예절학을 정립하여 실천예절을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학은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학영역을 의식주생활, 유아교육, 가족 상담 및 소비자 관련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가정경영, 호텔경영, 레저산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이기영, 1998). 이때, 모든 영역에서 예절은 필수적으로 관련된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 가정의례정착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1999. 8. 9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의례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의 예절교과 편성과 예절학원의 설립(다도교실 등) 및 자격증 시행의 문이 열림에 따라 대학과 연계하여 학회차원에서 예절 전문인 양성을 위한 예절지도사의 양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워크샵 등을 통한 재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번째, 예절교육에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가, 즉 무엇을 계승하고 창조하며, 민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리며 문화의 세계화부분을 고려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국제교류가 많은 요즘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며, 한국문화를 알리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국제회의, 연수, 관광은 외국인에게 예절교육이나 한국의 생활문화와 예절교육 및 시연은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예절문화원(충남대)'을 만들어 관광산업적 가치를 높이

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절은 전통생활문화적 측면도 있으므로 가정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마치며

하나의 문화로서의 예는 인류 및 세계적 보편성과 사회적 특수성, 그리고 문화적 상대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교육과 전수를 통해 전승되므로 가정 및 학교를 통한 예절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절교육은 전문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며, 다양한 직종에서 인간관계, 직업생활의 일환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즉 전통문화의 전수 및 창조,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서도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하여 예절지도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정학 분야에서 특히 가정관리학 영역은 이론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천학문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의 세기,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 기분 좋게 살아가려면 전통윤리와 시민윤리를 조화시켜 대학생들을 위해 현대사회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예절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연구와 실천 보급운동이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예절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학문과의 연계하여 '가정학적 측면에서 본 예절교육'에 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건전가정의례 준칙(1999. 2. 8)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김충렬(19994), 김충렬 교수의 유가윤리강의. 서울: 예문서원.

문용린 외(1998). 멋진 시민 품위있는 한국인. 2002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추진협의회.

박성춘(1996). 인격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방은령(1995). 도덕성 발달과정에 관한 자기보고(自己報告)의 내용분석
 - 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 외(1998). 인간과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
-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3호. 135-146.
- 이민수 역해. 예기(禮己). 서울: 혜원출판사.
- 이정우 외 공저(1998).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 · 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속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창학 90주년 특집호. 3-24.
- _____ (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 · 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3.
- 이정우 · 이미선(1985). 가정관리 실습관 실습후의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13.
- 이행숙(1998).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 5집.
 173-200.
- 임원자 외(1996). 가정대학 교과과정연구. 생활과학연구 . 서울대학교.
- 임혜경 · 정지영(1998). 대학생들의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4집. 1-22.
- 임희규(1994). 생활예절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3집.
 211-230.
- 정지영 · 주영애 · 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3집.
- 조기홍 · 박경자 외(1987). 예 론.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충남대 유학연구소(1999). <한국예절문화원> 설치운영의 필요성(Ⅰ). 개교 47주년
 및 선현연구실 개설 기념 학술대회.
- 한국여성교양학회 (1991). 생활예절. 서울: 양서원.
- 홍승직 역해(1994). 논어(論語). 서울: 고려원
- 황경식(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 고려대학교(1996). 고대신보.
- 서울대학교(1996). 대학신문.
- 문화일보. 1996. 11. 21.

< 예절과목 개설대학 관련자료 >

강원대학교. 1999

대진대학교. 1999

동덕여자대학교, 1999

명지대학교. 1999

성신여자대학교. 1999

숙명여자대학교. 1999

중앙대학교. 직업세계

한경대학교. 1999

한양대학교. 1999